

아시아 4개 권역 음악·문학 여행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23~24일
홍콩 타악·무용·문학 앙상블
키르기스스탄 5·18 소재 음악극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공연이 오는 23~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홍콩 ‘톨박스 퍼커션’.

아시아 4개 권역의 음악과 낭독극을 엮은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3시에 각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1관과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 공연은 ‘아시아로의 여행’을 주제로 동·서·남·중앙아시아 4개 권역의 음악과 문학을 다룬 예정이다.

첫날에는 홍콩의 타악 앙상블 연주를 만난다. 홍콩 ‘톨박스 퍼커션’은 타악 음악과 문학, 현대무용을 융합한 퍼포먼스 ‘도시건설’을 무대에 올린다. 중국의 마작을 활용한 타악 연주곡 ‘라운즈’와 카프카의 소설 ‘트림’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현대인의 무력감을 묘사했다.

이어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음악 단체인 ‘우스웃 사키르트 앙상블’이 광주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을 펼친다. 1970년대 월산초교와 ‘수박등’에서의 추억과 1980년 5월에 얽힌 이야기를 키르기스스탄 전통악기와 서사방식으로 소개한다.

이날 마지막 무대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여행을 떠난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에 영감을 받아 일본 켄 우에노가 작곡한 ‘불의 어머니’를 홍콩

‘톨박스 퍼커션’과 임규수의 태평소 연주로 듣는다. 또 작곡가 최원석이 사막 한 가운데 빌딩숲과 모스크의 공존을 그린 ‘모래, 유리와 기도’가 DJ 최봉권의 전자음악과 결합해 연주된다.

마지막 날에는 동양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 타고르의 작품을 낭독극으로 만난다. 이날 무

대에서는 타고르의 인간관과 미학이 집약된 희곡 ‘붉은 협죽도의 꽃’ (레드 올랜더스)을 지난해 ‘두산연극예술상’을 받은 이연주가 새롭게 연출했다. 전석 2만원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1장의 티켓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아트페어 때 놓친 작품 있다면...

이화갤러리 12월 4일까지 ‘애프터 페어’ 전

아트페어는 다양한 작품을 사고파는 미술 시장이다. 작가들은 정성 들여 작업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관람객과 구매자를 기다린다. 하지만 전시기간이 4일에 불과해 1년간 작품을 준비했던 작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기간이기도 하다.

광주 이화갤러리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했던 작가를 초청, ‘애프터 페어(After Fair)’전을 오는 12월 4일까지 연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시도되지 않은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각각 이화갤러리·볼빨간아트센터, 올아트페어에서 성과를 거둔 신수정·백애경 작가,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인 성유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아트페어 참여하며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이영실 작가를 함께 초대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100호 대작 등 10여점을 판매한 신수정 작가는 ‘관조’ 시리즈를 전시한다. 올해 신작은 파랑, 녹색, 보라 등 다양한 배경색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과 함께 화폭 아래 자유로운 느낌의 사선을 그어 다채로운 색감이 드러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백애경 작가는 알록달록 꽃을 화려 전면에 배치한 ‘향기 속으로’, ‘몽환 속으로’ 시리즈로 관



신수정 작 ‘산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다’

객을 만난다. 오랫동안 ‘꽃그림’에 몰두해온 백작가는 화려한 색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와 대한원에서 만화·애니메이션과 한국화를 전공한 성유진 작가는 두 장르의 특성을 결합시킨 ‘심장생’ 시리즈, 여인의 모습과 몽환적 배경이 인상적인 ‘Long Live the Queen’ 시리즈를 전시한다.

이영실 작가의 ‘소통과 거짓말’ 시리즈는 키치적 느낌이 나는 작품이다. 원색적이고 대담한 색감은 그녀 작업의 특징으로 작품 속에는 다채로운 서사가 숨어있어 관람하는 즐거움을 준다. 문의 010-3938-44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 박선호·최보라 무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올해 마지막 일요상설공연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린다. ‘일씨구~~ 입동일세’ 넷째 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청년 국악인 박선호(사진)와 최보라가 무대를 꾸민다. 이들이 꾸미는 ‘신인풍류무대’는 전통 국악 활성화와 계승을 위해 전통문화관이 올해 첫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청년 국악인 10명이 매월 마지막 주에 2명씩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8회 승달국악대제전’과 ‘5회 전국고수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박선호가 지역희류 ‘해금산조’를, ‘20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받은 최보라는 단가 ‘강상풍월’과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인다.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은 다음 해 3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시아스합창단 26일 광주문예회관...내달 2일 목포 공연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사진)이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7시 20분 2차례에 걸쳐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이번 공연에서는 ▲1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뮤지컬 ▲3막 헌넬의 ‘메시아’ 중 명곡들을 선보인다. 러시아 공훈 예술가이자 그라시아스합창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보리스 아발란이 지휘봉을 잡았다.

올해 북미 25개 도시 투어를 마친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지난 17일 경기도 안산 공연을 시작으로 26일 광주, 12월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12월23일 서울 여의도 KBS홀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순회 공연 수익금은 아프리카 자선공연과 국내 소외계



층을 위한 공연에 쓰인다. 2000년 창단한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14년 이탈리아 ‘리바델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2015년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 최고상을 수상했고 최근 한국 가곡을 부른 앨범을 발표했다. VIP 10만원·R석 8만원·S석 6만원·A석 4만원. 문의 1899-219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수화의 재해석...이상향...동심 회귀

김단비전 28일까지 광주 갤러리 D

김단비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은 은하수로 반짝이는 밤하늘에 몽게구름이 떠있고 잔잔한 물결, 시원한 폭포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녀는 그곳을 ‘별유천지(別有天地)’라 칭했다. 별세계, 즉 속세를 벗어난 이 세상 밖의 다른 세계이자 이상향을 뜻한다. 어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공상에서 시작된 주제가기도 하다.

김단비 작가 네번째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 갤러리 D에서 열린다.

‘별유천지(別有天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동양적 산수화를 재해석, 다채로운 색채로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점점이 점진된 산세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은 고전적 산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며 전통적인 선과 대비되는 화려한 형광색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몽환적인 신비감을 전한다.

‘별유천지’ 시리즈는 올 봄 파리에서 광주시



김단비 작 ‘별유천지(別有天地)’

립미술관 주최로 열린 ‘광주문화도시전’에 전시됐으며 ‘2018 화음프로젝트 페스티벌’에 선정된 현대미술 작가에게 영감을 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별구름’이라는 기악곡으로 작곡과 파리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연주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를 수료했다. 문의 062-222-80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